

임실치즈 50년 역사 '조명' "민선 6기 성공적인 마무리 향한 질주"

지역 매아리

임실군 9월 전직원 청원조회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조회에서 심 군수는 민선 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강조하며, 5대 핵심 당면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을 해들어 우리 임실군은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잘 해결되고 괄목한 만한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 성장·발전시켜 나가는 데 전직원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임실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9월 청원조회에서 심 민 군수(사진)는 "올해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의 연중 최대 행사인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열린 이날 청원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전 직원의 화합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임실N치즈 축제의 막바지 준비와 홍보 강화로 민점준비 치즈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4천여 예산시대를 목전에 두고,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2018년 신규사업 발굴과 건전한 예산편성에 주력할 것과, 주요 핵심사업 등의 로드맵 재검토 등을 통해 ▲하반기 군정 마무리와 각종 평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추진

순창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보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군은 순 산하 공직자와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방식은 실과별로 월 2회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는 월 1회 지정된 날자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순창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등 9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황수주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 사회단체가 장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작은 목욕탕이 9월부터 하반기 운영에 들어가면서 면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작은 목욕탕 내부.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정했다.

이에 이번 임시회는 9월 1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12일 운영행정위원회, 산업복지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3일~15일(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천원의 행복 '작은목욕탕' 문전성시

순창군 하반기 운영 시작 일 평균 이용객 60명 이상 면지역 주민 만족도 높아

순창군 작은 목욕탕이 9월부터 하반기 운영에 들어가면서 면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9개면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이용객수가 3만2,000명을 넘어서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하반기 운영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도 크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작은 목욕탕 하루 이용객이 평균 60명을 넘어선 수치다.

올해 하반기 운영은 인계면 작은 목욕탕이 지난 4일 문을 열면서 시작을 알렸다. 적성면은 오는 12일 북곡면은 13일, 팔덕면은 18일, 금과면은 19일 문을 연다. 유등, 풍산, 쌍치면은 20일 문을 열 준비 중이다. 동계면은 11월 1일 문을 연다. 각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작은 목욕탕 운영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순창군 작은 목욕탕은 10개 면 중 9개면에서 운영 중이다. 구립면은 현재 공사가 한 장인 상태로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2억 5천여만원이 투자됐다. 내년부터 구립면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면 도내 최초로 모든 면지역에서 작은 목욕탕이 운영되는 최초의 군이 될 전망이다. 천원외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어 노인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군은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지역은 취약계층 목욕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차별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작은 목욕탕이 9월부터 하반기 운영에 들어가면서 면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작은 목욕탕 내부.

순창군 작은 목욕탕은 10개 면 중 9개면에서 운영 중이다. 구립면은 현재 공사가 한 장인 상태로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2억 5천여만원이 투자됐다.

내년부터 구립면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면 도내 최초로 모든 면지역에서 작은 목욕탕이 운영되는 최초의 군이 될 전망이다. 천원외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어 노인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군은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지역은 취약계층 목욕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차별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추석 성수식품 특별점검 돌입

남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성가리 일대 6억원 투입 마을 고유문화자원 활용 문화사업 특화공간 조성



임실치즈의 산역사를 담고 있는 임실을 성가리 일대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적 문화사업의 특화된 공간으로 개발된다.

임실치즈의 산역사를 담고 있는 임실을 성가리 일대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적 문화사업의 특화된 공간으로 개발된다.

임실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임실을 성가리에 위치한 상성마을이 문화마을로 선정,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6억원(국비2억4000만원, 지방비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임실을 성가리에 위치한 상성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활용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한국 치즈의 원조인 임실 성가리 치즈공장을 비롯해 과거 임실의 읍치(邑治)로서 임실향교, 임실성당, 임실문화원, 천도교임실교구, 백로서식지, 상성마을박물관 등 임실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인 내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조직 및

마을의 문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2년 차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참여형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난 해부터 상성마을 일대에 임실치즈와 임실 역사를 주제로 한 마을벽화사업과 '임실N치즈 50년사'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1967년 지정환 신부가 임실을 성가리에 세운 치즈공장을 복원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민협의체 조직을 구성,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문화공동체적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에 마을주민, 자문가, 행정부처가 함께하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한편 향후 문화전문가를 영입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기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의견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설계 완료

선진형 관리체계 구축 박차 2020년까지 730억원 투자 분뇨처리비 연 6억원 절감

남원시가 선진형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73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차집관 및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성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측량 조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8개 하천에 대한 차집관정비 417개소(31.2km), 시가지 하수관로 4개구역(31.7km) 및 배수설비 2,649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성, 확정하였다.

남원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이 2020년 완공되면 남원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하루 30,000㎥ 이하로 줄고, 시민의 분담액인 분뇨처리비용이 연간 6억 원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강우 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강우시 시범사업지구를 확정 발표하고 선진형 하수관리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고 하수의 수집, 이송, 처리 등 각 단계별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그동안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장은 하루 5만 톤 처리용량으로 시설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관이 합류식과 분류식 혼용으로 빗물이 유입돼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은 하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20년 단위의 하수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매년 하수관리 신규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져 추가로 진단 및 용역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설계자 중심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사자료 활용도 저하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없는 분석을 통한 단순한 시설계획으로 사업 타당성 부족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시설 후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 하수도정비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강우시와 비강우수에 도 안정적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한 하수도 시설을 정립하기 위한 선진형 하수도정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수관리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등 환경부와 최종 재협약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하수관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고 지적하고 "하수관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3단계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원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97억원의 사업비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 단계에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벌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벌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